

대우중공업, 「우리가 만든 장갑차」 출판기념회

— 장갑차 개발에서 수출까지의 전과정 담아



대우중공업은 5월 30일尹鍾昊 국방부 제2차 관보, 裴文漢 국방과학연구소장, 柳繼佑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尹永錫 대우중공업회장 등 장갑차 개발과 수출에 관여한 정부 및 군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회관에서 한국형 장갑차 수출 및 「우리가 만든 장갑차」 책자(한국판, 308페이지) 출판에 대한 기념회를 가졌다.

대우중공업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사상 최초로 지난 93년 11월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등 해외유수 방산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승리, 보스

니아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견된 말레이시아에 42대의 한국형 장갑차(모델명 : K-200)을 수출한 이래 94년 6월 말레이시아에 22대의 추가 수출을 비롯 해외에 장갑차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대우중공업은 이러한 역사적인 장갑차 수출을 기념하고 장갑차 개발 및 수출 관계자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장갑차 개발에서 수출까지의 전과정을 책자에 담아 출판기념회를 갖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군에 1500여부를 기증했다.

'95 방산 실무간담회 개최

국방부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관련 국방부 관계관과 업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95 방산 실무간담회를 5월 26일 국방회관에서 개최하였다.

尹光雄 획득개발국장과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공동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지난 '94 방산간담회 및 '95 군용장비 부품국산화 토론회 개최시 제기되었던 방산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내용 발표가 있었다.

이어 방산관련 주요 애로사항이 방산정책분야, 방산지원분야, 기술협력분야,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관리분야, 품질보증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현실태 및 문제점 제기와 함께 격의없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와 업체간 신뢰증진 및 방위산업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國科研, 防産 연구개발 간담회 성황리에 개최

— 정부의 과감한 투자확대와 관련제도 개선 건의



지 난 5월 25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위산업체 임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을 비롯한 23개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특히 國科研은 방산·연구개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여 참석한 방산업체 대표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날 각 업체 대표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확대와 정책부서의 관심제고로 방산 연구개발을 활성화시켜줄 것과 기술정보자료의 원활한 유통과 관련제도의 개선 등 새로운 차원의 활성화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방위산업체와 軍,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삼성항공, 블랙호크 엔진 출하, 본격생산 돌입

삼 성항공(대표 :李大遠)은 최근 대형 군용헬기인 UH-60(블랙호크)에 장착될 T-700 엔진 1호기를 출하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이 엔진은 삼성항공이 原제작사인 美 제너럴 일렉트릭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면허생산하는 것으로 삼성항공은 이 사업을 통해 엔진 설계 기술 확보와 엔진 부품의 국산화 확대를 모색해 향후 중형항공기 엔진 개발 등 독자적인 엔진 개발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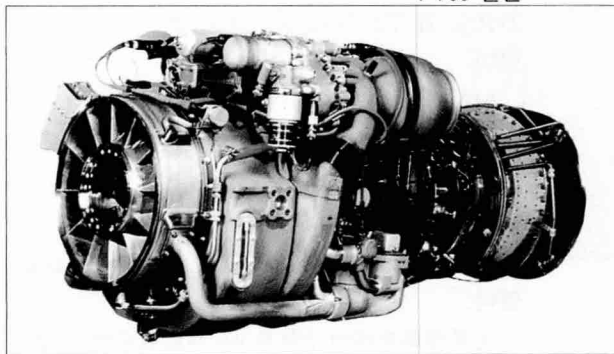
특히 삼성항공은 이미 터빈 블레이드, 터빈 디스크 등 엔진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현재 35% 가량의 국산화율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며 나아가 엔진의 해외 수출도 추진중에 있다.

이번에 출하된 T-700 엔진은 美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개발한 1800마력 터보 샤프트 방식의 엔진으로 UH-60헬기와 AH-64(아파치) 헬기에 장착, 전세계에 10,0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정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첨단 엔진이다.

삼성항공은 이 엔진 생산을 위해 지난 1년 5개월에 걸쳐 30억원을 투입, 오는 99년 말까지 총 120여대를 생산하게 된다.

한편 삼성항공은 그동안 F-16, F-5전투기 엔진 생산과 대형 항공기 국제 엔진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으로 쌓아온 엔진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2천년대 초 독자적인 항공기 엔진을 설계 및 개발함으로써 세계 10대 항공기 엔진 전문업체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T-700 엔진



『한국의 무기조달 정책 결정』 세미나 열려

— 국제평화전략연구원, SIPRI 공동 워크숍



국 제평화전략연구원(이사장 權憲成)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6월 20일 조선호텔에서 “한국의 무기조달 정책 결정”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966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군축문제 연구기관으로 현재 남북한을 비롯한 18개 국가의 무기조달 결정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에서 최초로 수행되는 협력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국제평화전략연구원에 연구비 전액을 후원하는 조건으로 협조를 의뢰,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공동 워크숍은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수한 안보현실을 비롯한 제반 여건상 제반 여건상 여전히 심층적인 학술연구대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무기조달 정책결정”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은 이 프로젝트에 최종철

국방대학원 교수를 대표 집필자로, 김태우 동 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송병록 경희대학교수, 한용섭 국방대학원교수, 배진수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필중 국방부 21세기국방연구위원회 연구위원 등 15명을 주제별 집필자로 각각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이번 워크숍은 “국방연구개발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의 방위산업기지—그 한계와 기회”, “무기조달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국방비지출과 국가경제”, “한-미 무기이전관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책” 등 그동안 필자들이 집필한 15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와 토론에는 학계와 군에서 우리나라 국방연구를 다루어 온 최고 권위자들이 총망라되어 참여하여 심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외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울곡사업 등 성역으로 남아 있었던 무기조달 결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국내 학술모임으로는 처음으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